[문항 2-1]

(299 / 330)

(가) 의 로빈슨은 무인도에 방치되어 생존에 집중하다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스스로를 발견한다. 이는 그의 미소를 받아줄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주장과 같이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의 커넥톰, 즉 연결된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단일한 자아가 아니라 주변 인물과 사물 등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로빈슨이 웃는 법을 잃은 것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홀로 생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서, 그의 자아를 상징하는 미소와 관계적 커넥톰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된 것이다.

[문항 2-2]

(600 / 660)

(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상호존중적 자기실현의 개인주의의 한 양상인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가 팽배해 있다. 자기 진실성에 근거한 개인의 자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때문에, 타인이 그 가치관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독자적 자아를 표방하는 이 견해는 (가)와 (나)의 입장과 충돌한다. (나)에서는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주변 인물, 사물과 맺어진 관계적 커넥톰에 근거한 것이다. (가)의 로빈슨이 거울 속에서 웃음을 잃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공허함과 슬픔을 느낀 것 역시 무인도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상호존중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아는 외부와 단절된 고정된 존재일 수 없다. 개인의 잠재성은 내면에서 스스로 발생해 존재하는 것이 외부 자극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성된다. 상호의존성을 부정한다면 (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적 생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인간성 회복이나 정서적 안정에는 한계를 지닌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가)의 로빈슨이 소통할 상대방을 원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인 본성을 거스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 주장하는 독립적 자아와 가치관은, (가)와 (나)에 의해 반박된다.